**비케이 안의 기부 논평**

 대림산업 이준용 명예회장의 기부 2,000억 원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 그 동안 기업인의 기부에 대해 이슈에 되었던 ‘개인기부’, ‘경제 기부’, ‘생전 기부’등의 민감한 문제점에 관련한 키워드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마치 수년간의 가뭄에 단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를 받은 것과도 같다. 아직 비가 오진 않았어도 심리적 갈증 해갈에 도움이 된다. 기부라는 스테이지에는 커튼 뒤의 세계와 커튼 앞에 세계가 있다. 기부자는 이 두 세계를 이해해야만 한다. 그래야 만족도가 높아진다. 2,000억 원의 의미는 사이즈에 있다. 아마도 개인기부로 한국기록을 경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록경신은 인간의 동기를 유발시킨다. 필란트로피 생태계는 기록경쟁이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킨다. 하버드대학은 MIT와 대학간의 최고기부금 경쟁을 하고, 각 나라끼리 기부품격을 정하는 기록경쟁이 자존심 경쟁으로 변하면서 물밑에서 다양한 각축전을 벌이기도 한다. 이번 이준용 회장의 기부는 분명히 한국의 모금가들에게는 좋은 뉴스지만 한편으로는 기부 생태계에 존재하는 기존의 ‘게임 룰’을 벗어난 것 같아 할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마치 Monday morning quarterback**( 경기가 끝나고 마치 감독처럼 뒷담화)**처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혹은 “나라면 말이야”라고 뒷담화나 하다가 후회하기 전에 누군가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 비록 기부문제에 관한 만큼은 ‘성스러운 소, 聖牛’ **(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사회적 성공방식**)를 건들고 싶은 전문가는 없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다시 한번 건설적인 기부문화의 담론을 끌어내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고, 이때 모금전문가인 필자는 역사가 주는 교훈 5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1. 미래형과 과거형**

'낼 것이다' 와 '냈다'는 말의 차이가 크다. 기부 의지를 나타낸다는 것도 사실이고 진정성을 갖는다는 의미도 사실이지만, 실제 기부한 것은 아직 아니기에 좀더 지켜보면서 진행되도록 뒤에서 도와야 했었는데 너무 앞서 나간 느낌이다. 떠벌림 효과(profess effect)로 명예를 중시하는 기업회장이 구두로 한 약속은 본인에게도 실천해야만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구두로 한 약속을 신문에 공고를 한다는 것은 약간 앞서 나간 것이라고 본다. 실제 시기, 금액, 조건 등이 관심자들의 기대와 다르게 나올 경우는 분명 네티즌에 의해 악플이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이는 본의 아니게 기부자에게 큰 실례가 될 수도 있다.

모금계에는 퀴즈가 있다. 나뭇잎을 타고 냇물에 떠내려가는 개구리 세 마리 이야기다. 그 중 한 마리가 말한다. "나 너무 더워서 물속에 들어 갈 거야"라고. 그 이후 ‘개구리는 과연 몇 마리가 남았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당연히 의도와 실행은 다르기에 몇 마리가 남았는지는 실제 물속에 뛰어 들어갔는지에 따라 답이 다르다.

**2. 이해 충돌**

조선일보가 한국의 리딩신문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번 기부를 다루는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오해소지가 있다. 다른 곳을 통해 좀 더 지혜롭게 담론화시키고 나중에 조선일보에서 서서히 홍보하는 것이 리딩 미디어로서의 프로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조선일보의 역할이 분명 한국기부문화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이번 기부 소식에 대해 다른 미디어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통일문제 코즈는 모든 미디어에서 골고루 나와야 하고 미디어 권력도 서로 분배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주제도 한쪽으로 몰리면 소외된 미디어는 유아적 인간처럼 관망만 하게 된다. 조선일보와 통일재단의 역할은 아주 훌륭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기 전에 결과가 나오고, 또 ‘임팩트’를 줄려면 칭찬도 나눌 건 나누어야 하고 희생의 역할분담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나눔'의 리더십일 것이다.

**3. 전문가 집단 조언 필요**

기업인은 돈을 모으는 것에는 달인이지만 기부 문제는 재단과 독립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2,000억 원이면 기부선진국 기준으로도 엄청난 큰 금액이다. 그 금액이면 통일문제에 지렛대(leverage) 역할을 할 수 가 있을 정도이기에 아마추어 보다 프로가 낫다. 워렌 버핏이 자신의 재산의 75%를 빌 게이츠 재단에 주겠다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현재 1/3만이 넘어갔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 서로 담당자 간에 실랑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른다. 대통령 출마도 탐구 위원회(exploratory committee)가 구성되는 것처럼 회장의 숭고한 생각을 현실에 맞추는 독립된 전문가 집단의 조언이 필요하며, 이 일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회장의 숨어있는 의도를 끌어내어 현실적으로 실현되도록 조율이 필요하다. 법적문제, 세금문제 윤리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기부 의사를 밝힌 한국의 유명인들이 실제 이런 문제에 부딪쳐 실망한 예가 너무나 많았고 실행에 실패한 케이스가 부지기수다.

**4. 구체적인 쓰임에 포커스**

 기부금 용도가 너무 광범위하면 나중에 문제 소지가 많다. 물론 용도의 범위가 넓던 좁던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좁은 범위에 한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부다. 통일문제 준비금이란 말은 오해 소지가 있고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 큰 금액으로 큰 일을 하고 싶지만 참여자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실제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현명하다. ‘디테일에 악마가 있고, 디테일에 신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문제(악마)와 해결(신)을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기부의 본질이다. 그 디테일에 합의가 된 뒤에 홍보가 되어야 정석이다.

**5. 재단의 역량을 테스트 중**

통일나눔재단이 2,000억 원을 받을 역량의 사이즈인지 아직 잘 모른다. 느낌은 매우 좋다. 하지만 시험은 시작되었고 시험중간이다. 남들과 같이 치르는 시험 중간에 마치 우수성적표를 미리 주는 것 같아 순수성에 오해소지가 있다. 우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다른 기존 검증된 조직에 먼저 지정기부하고 나중에 통일나눔재단에 넣어도 된다. 사실 그 주머니나 저 주머니나 같은 한국통일을 준비하는 주머니다. 하지만 그 동안 평판을 쌓으려고 노력한 많은 통일 관련 재단들에게는 허탈한 심정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검증할 필요 없이 이름과 관계로만 기부가 된다면 사실 모금이론을 배울 필요가 없다.

필자는 조선일보와 통일나눔재단이 통일문제를 선도하고 주도할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통일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어느 기업인의 귀중한 결심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더 기부문제에 인생을 바친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찬사도 좋겠지만 악마의 변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제대로 된 기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